

나노실버, 고부가가치 첨병 부상

강한 살균작용에 다양한 적용 가능 ... 지속가능 성장이 과제

나노실버가 강한 살균력을 무기로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Personal Products를 비롯해 의약품 보관용기, 섬유, 페인트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면서 고부가가치 첨가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노실버는 강력한 항균 및 살균 메커니즘 특성 때문에 각종 염증관련 치료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상으로는 화상, 위장염, 구강염에 아주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로서의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염소계열 보다 수십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무해해 생명공학, 의학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나노실버는 메이커별로 2-30% 정도 가격 차이가 있지만 kg당 20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 중반까지 kg당 300만원 이상을 호가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급격한 가격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적용분야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나노실버의 유행이 바람으로 그칠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 될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며 관망세를 내놓고 있어 시장 확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7/13>